

<하기 글은 2017년 5월 16일 삼성전자 소통블로그에 게재된 글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랜만에 내린 봄비로 더위가 주춤했던 지난 5월 10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 정기회의가 열렸습니다. 열띤 토론으로 어느 때보다 분위기가 뜨거웠던 회의 현장을 지금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이른 아침부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로 모인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 위원들! 서로 안부 인사를 나눈 뒤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했는데요. 먼저, 지난 2개월간 접수된 지역주민들의 주요 민원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3월, 농서동 인근의 주차 문제와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는데요.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 위원들은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 사항과 조치 결과에 대해 꼼꼼하게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의 주요 사회공헌활동 현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2개월간 삼성전자는 △치매예방사업 협약 체결 △사회적 기업을 위한 사내 나눔장터 실시 △'다 함께 한 걸음' 장애인 이동기기 전달 △미스터리 행복버스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달 역시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참여로 지역을 위한 활동이 꾸준히 이어질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 5월 정기회의는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마무리됐는데요. 기흥동 이광순 위원을 만나 회의에 참석한 소감을 들어보았습니다.



**이광순 위원 /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지역사회 소통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합니다. 특히, 주민들의 각종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모습이 좋았는데요.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삼성전자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돕겠습니다. 파이팅!”

이번 정기회의에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소통에 임하는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 위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될 그들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